

#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2024. 2. 28.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4년 2월 28일(수) 14:25~17:48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중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 4. 회의경과

###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4년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 1) 회의록 보고

- ☐ 2024년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31호 『OOOOO 주식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증선위에서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 (보고자) 규정에 보면 신고자가 불공정거래행위에 직접 연루되어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범위반 정도를 감안하여 포상금을 감액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
- (위원장) 제31호 안건은 포상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보고안건 제3호 『OOOO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등 긴급 조치 결과 보고』를 상정하고 서면보고 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4호 『2023년도 증권선물위원장에 대한 위임업무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하고 서면보고 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24호 『(주)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재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회사는 10% 작량감경을 하고 감사인도 그렇게 고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 또한, 관련 사례에 대한 법원 판단 등을 고려하여,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검찰통보를 업무정보송부로 대체하였으면 함.
- (위원) 찬성함.
- (위원) 동의함.
- (위원장) 제24호 안건은 회사와 감사인에 대해서 과징금 10% 감경하고,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검찰통보는 업무정보송부로 대체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32호 『(주)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먼저 회사는 기술개발과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용역계약의 한쪽 당사자일 뿐이었음. 그런데 사업을 제안하고 주도한 관련자들은 코인을 발행하

고 △△△△을 통한 기부금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기술개발과 마케팅 용역비를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음. 그래서 용역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제가 재단의 이사로 등재하기로 하고, OOO와 제가 △△△△에 대한 접근암호를 분할하여 보관하기로 한 것임. 위와 같은 목적 이외에 제가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수취하였거나 주식을 보유했던 적은 없음. 둘째로 제가 2016년부터 해외사업을 할 때 지속적으로 영어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음. 재단이 외국법인이어서 자연스럽게 용역계약서상에 영어이름으로 서명을 하게 된 것임. 셋째로, 재단으로 부터의 용역매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저희 회사가 재단과 특수관계라거나 용역거래를 주식에 기재한다거나 하는 의견을 전혀 받지 못했고 그런 상태로 회계감사 ‘적정’ 의견을 수령하였음. 이처럼 저희는 이 용역거래가 주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아예 생각도 못 했음. 부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주시고, 회사와 주주, 소비자를 위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 (진술인) 제가 재무담당임원이었을 때 금융감독원이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이고 해당 회계감사기간의 감사인에게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의로 은폐를 했다는 금감원의 의견은 과도한 조치이지 않느냐는 판단이 있음.

○ (위원) 아까 진술하신 내용을 보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용역

을 제공했는데 그쪽에서 약속된 대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기에, 진술인께서 그쪽의 대표이사로 들어가신 것인데 내가 대표이사로 참여는 했지만 특별히 통제(control)할 수는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서로 모순 아닌지?

▶ (진술인) 재단의 역할이라고 하면 초기에 △△△△을 기부 받은 것을 분배하고 분할하는 것 외에 제가 어떤 역할이 있었던 적도 없음. 용역이 끝나자마자 2019년에 지체없이 이사회에서 해임을 신청하여 해임되었음.

▶ (진술인) 진술인의 요지는 자기가 이사로 들어갔다는 것이 재단의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용역 대금인 △△△△을 혹시라도 다른 투자자나 상대방 쪽에서 함부로 유용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을 이체하는 키(Key)를 분할해서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임.

○ (위원) 재단에서 △△△△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결국 관여했다는 말 아닌지?

▶ (진술인) 제가 당시 회사의 CFO로서 그때 당시에 대표이사 겸직으로써 이름을 올리되 경영의 분산이라든지 업무의 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서를 그때 당시 재단이사회에서 달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거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함.

○ (위원) 진술서에는 기술적으로 처음 해 보는 일이어서 매우 힘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만약 독립적인 재단이든 아이디어그룹이라든 코인을 만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인데 이런 용역과 마케팅까지 맡긴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음.

▶ (진술인) 힘든 것은 마케팅과 자금조달해서 사업하는 것이 힘든 것이지, 앱을 만들거나 토큰 만드는 것에 대한 기술은 고난도(high class)기술은 아님.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감사인은 회계기준 상 재단이 특수관계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본 기준서 제1024호 문단9에 따라 보고기업인 회사의 주요 경영진 일원인 개인에 의해서 지배되는 기업은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됨. 그런데 본 건에서 회사 대표이사 및 OOO는 보고기업 회사의 주요 경영진에 해당되는 개인이나 재단은 이들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어서 특수관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임. 재단이 비영리법인인 점, 회사 대표이사와 OOO가 지분관계가 없는 점, 회사 대표이사가 재단의 이사이기는 하지만 변동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없다는 점 등을 기준서해석에 따라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특관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본 건 조서화 부실 등 절차소홀을 논하기 전에 애당초 기준서 문언상 특관자로 보지 않

을 여지가 상당한 사안이어서 중과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금 동 건을 보면 회사 대표이사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해당 재단과의 거래이고, 2018년의 경우 재단과의 거래가 전체 매출액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특수관계자 거래를 유의적인 위험영역이라고 기재를 하셨으면 당연히 회사와 재단의 특수관계자 여부, 그 거래의 내용, 실질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음.

▶ (진술인) 그와 관련해서는 감사인이 특수관계자라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회계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였지만 사실 특수관계자에 준한다고 판단해서 그에 대한 매출 실재성에 대한 감사는 상당히 철저하게 밟았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됨.

- (위원) 그러면 감사인이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검토한 내용이 조서화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도 전혀 조서화 되어 있지 않음.

▶ (진술인) 조서화하지 않은 이유도 어떻게 보면 재단법인이라는 속성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동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니라고 단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굳이 더 나아가 조서화해야 될 필요성까지 아마 못 느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임.

- (위원) 그리고 금감원은 기준서 제1024호 문단10에서 기재된

바 있듯이 법적 형식만 따질 것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사실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도 제재의 판단근거로 삼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진술인) 경제적 실질까지 따져서 재단을 지배한다는 것까지 나아가버리면 그 점은 단순히 특수관계자의 문제가 아니라 종속회사로서 연결까지 해야 된다는 논리로 비약되어 버릴 수 있음. 실질을 강조하면 그런 논쟁(issue)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준서 원론으로 돌아가서 과연 특수관계자 관련된 기준서 문언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됨.

▷ 마지막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장) 이것을 회계처리를 떠나서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check)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제32호 안건은 보류하겠습니다.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33호 『계양전기(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회사에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외부 요인으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유동성이 과잉공급 되었기 때문에 회사 주식의 일평균 거래금액이 일시적으로 급증을 했던 것임. 이러한 일시적 외부요인이 없었던 2019년과 2020년 이후의 일평균거래금액 기준으로 하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크게 감소하게 됨. 이처럼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일시적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과징금 경감을 요청 드림. 횡령에 따른 직접적 손해 외에도 수습 과정에서 내부통제 강화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서 회사의 과징금 감경하는 것으로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림.
- (위원) 개인 직원의 일탈행위로 인한 위법행위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회사나 경영진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생각함.
- ▶ (진술인) 기본적으로 내부통제가 부족한 것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 그 부분에는 책임을 면할 생각은 없음. 다만, 전반적인 측면에서 회사 경영이 좀 어려워서 경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요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감사인의 위법동기 판단과 관련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절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입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의 과소계상위험이 중요한 리스크인데, 매입채무의 과소계상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선 주로 매입채무 조회 확인 절차로는 충분한 감사증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매입채무 및 재고자산에 대한 회전을 분석, 결산일 이후 지급내역 확인 등 대체적 절차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거래처에 조회서를 보내지 못한 사유로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로 판단하는 것은 고려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과정에서 위·변조된 감사증거를 제출해서 감사절차를 방해한 회사의 경우도 ‘중과실’인데 이런 대체적인 감사과정에서 위·변조된 감사증거로 인해서 감사방해가 있었고 이런 사유로 횡령을 발견하지 못한 감사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중과실’로 판단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조금 고려할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 매입채무 확인할 때 조회처로 발송하지 않았는데 마치 발송했는데 회수되지 않은 것처럼 조서화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진술인) 조서상으로는 표본(sample)로 선정된 거래처 중 조회서를 보냈는데 못 받은 곳 또는 조회서를 보내지 못

한 곳 전부다 직원(staff)의 입장에서 “미회수”라는 용어로 기재되어 있음.

▷ 마지막 진술인이 퇴장함.

(16시 52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 (위원) 회사의 경우 과징금산정기간에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폭증한 것을 고려해서 감경하는 것에 찬성함. 그리고 감사인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감사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부정거래행위 적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함.
- (위원) 저도 회사에 대해 감경하는 것에 동의함. 그리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중과실’이 아닌 ‘과실’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조회서를 발송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취했고 직원의 위·변조가 없었다면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통해서 횡령사실이 적발될 수도 있었다는 점, 그다음에 채권의 경우에는 실재성 확인이 중요합니다마는 채무의 경우에는 실재성보다는 완전성, 부외부채가능성 확인을 더 중요시 여기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과실’로 조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 (위원) 회사 과징금은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 때문에 과대계상된 면이 있으므로 감경에 대해서 동의함. 감사인 관련해서는 ‘과실’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듦.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안에 큰 이의가 없는 상황임.

- (위원장) 감사인에 대해서 감안할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중과실’을 ‘과실’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임.
- (위원장) 제33호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회사에 대해서는 일평균거래금액의 급증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50% 감경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동기를 중과실로 유지하되, 중요도를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4년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